

-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관람객 안전 확보에 초점
- 퀴즈로 배우는 안전상식으로 임직원 안전의식 제고

국립세계문자박물관(관장 김명인)은 지난 15일 임직원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‘도전! 안전 골든벨’ 행사를 개최했다.

이번 행사는 임직원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OX퀴즈, 4지선다형, 단답형 문제를 활용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됐다. 또한 조기 탈락자를 위한 ‘패자부활전’과 ‘돌발퀴즈’ 코너를 마련해 참여도와 흥미를 높였다.

문제는 산업안전, 재난안전, 화재안전,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상식과 관련 규정으로 구성됐으며, 특히 2022년 시행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 포함됐다.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, 현장 업무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목적을 뒀다.

국립세계문자박물관 김명인 관장은 “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직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,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”며 “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이미지 자료(2장) 1식. 끝.



[사진1] 도전! 안전 골든벨 행사 사진



[사진2] 수상자 기념촬영 사진